

인기 폭발! 브랜드 웹툰 전성시대

추운 날이면 생각나네...온장음료의 유혹

웹툰 마케팅이 뜬다

임페리얼 '4버디스' 100만뷰 돌파 직장인들 공감...친근한 브랜드로 주거·자산운용 정보 웹툰도 인기

브랜드 웹툰이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친숙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 웹툰은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이 선보인 '4버디스'다. 단 2회 연재 만에 100만뷰를 돌파했고 평점도 9.6으로 폭넓게 공감을 만들어 가고 있다.

●임페리얼의 '4버디스'

임페리얼의 브랜드 웹툰이 일반 웹툰처럼 연재 초기부터 인기를 끈 원동력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스토리에 임페리얼 브랜드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 독자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 스토리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많은 대한민국 3040 남성들이 웹툰을 보며 지친 일상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재미를 느끼고, 때로는 위안을 얻기도 한다. 타겟 소비자들인 3040 직장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일상에서 거부감없이 친근한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임페리얼은 웹툰에 주목했다.

30대 직장인 최경민 씨는 "이별한 첫 사랑의 결혼식이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갈등이 친구들과의 진실한 시간을 통해 치유되는 에피소드들이 실제 우리의 모습처럼 리얼해 소소하지만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브랜드 웹툰에서 브랜드가 은유적으로 숨겨둔 소재들을 찾아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준다. '4버디스'는 임페리얼 12가 소비자들과 가장 오랜 기간 함께 해온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스카치 위스키, '4버디스' 웹툰의 주요 스토리 '12년 지기 친구들의 진정한 우정'에 초점을 맞췄다.

●직방의 '직방툰'

주거정보 플랫폼 직방은 브랜드 웹

툰 '직방툰' 시즌 4 연재를 시작했다. '직방툰'은 부동산 정보서비스 업계에 선 직방이 지난해 처음 선보인 브랜드 웹툰으로 생활 및 주거와 관련된 고민을 에피소드로 다루고 있다. 다음 스토리블 삽화 연재를 해온 장두경 작가가 시즌1부터 글과 그림을 맡고 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의 '풍요로운 생활의 발견'

피델리티자산운용에서도 브랜드 웹툰 '풍요로운 생활의 발견'을 연재 중이다. 연금펀드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 네이버 브랜드 웹툰을 활용했다. '생활의 참견'으로 알려진 김양수 작가와 함께 일상생활과 연금펀드를 접목한 이야기를 재치있게 풀어내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직장인 오늘의 운세'

브랜드 웹툰을 넘어 이벤트에도 인기 웹툰이 등장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사이다 그림양으로 불리는 양경수 작가와 협업을 통해 '직장인 오늘의 운세' 이벤트를 진행한다. 운세 결과를 확인하고 경품을 받는 이벤트로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며, 잡코리아 앱을 설치한 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양경수 작가는 도서 '아, 보람 따위 댔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에서 직장생활 풍경을 재치있게 그린 일러스트를 발표해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다.

●테비스터즈의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테비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김종훈)가 자체 개발 중인 모바일게임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브랜드 웹툰은 대표적인 인기 사례 중 하나다. 지난 10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의 사전예약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웹툰 작가는 '북학왕'의 기안84, '치즈인더트랩'의 순기, '이말년 서유기'의 이말년, '4퍼맨'의 하일권, '마음의소리'의 조석 등 총 다섯 명으로 작가마다 개성이 담긴 브랜드 웹툰들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위스키 브랜드 임페리얼이 선보인 브랜드 웹툰 '4버디스'의 건배 장면. 사진제공: 임페리얼

커피·꿀음료부터 우유·밀크티까지 취향 세분화...소비자 입맛까지 공략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따스하게 즐기는 온장음료가 인기다.

온장음료의 인기는 실적으로 나타난다. 롯데칠성음료의 제품별 판매 실적에 따르면, 추운 시기인 11월에서 2월까지 총 4달간 온장음료의 매출은 1년 전체매출 중 꿀음료는 65%, 우유는 45%, 초코음료 37%, 커피는 30% 등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꿀음료로는 100% 국산 아카시아 벌꿀과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 유자청징농축액을 넣은 '허니사랑 유자사랑'과 국산 벌꿀, 홍삼 농축액을 함유된 '꿀 홍삼'이 있다. 두유는 비타민B2, 콩 단백질, 칼슘 등 영양이 풍부해 따스하게 데워 먹으면 겨울철에 입맛 없는 직장인, 청소년의 아침식사 대용으로 제격인 '참두 뉴트리빈' 2종이 인기다. 설량 함량을 기존 대비 약 25% 낮추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만의 특색있는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아낸 '칸타타 킬리만자로'도 온장 커피 인기 상품이다.

한편 식음료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웰빙 먹거리 선호와 취향 세분화에 따라



대표적인 온장음료인 꿀음료, 우유, 커피 등이 겨울철 음료업계의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비자 취향이 세분화됨에 따라 밀크티나 건강원료를 더한 꿀음료가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칠성음료

부드러운 풍미의 '밀크티'와 건강소재를 함유한 '꿀음료' 등의 신규 온장음료를 내세워 소비자의 입맛 잡기에 나서고 있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0월 선보인 '립톤 밀크티'는 125년 전통의 글로벌 1위 차 브랜드 립톤의 노하우로 만든 영국풍 프리미엄 밀크티다. 분유가 아닌 우유를 20% 넣어 더욱 신선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온진식품이 10월 출시한 '꿀떡'은 브랜드인 '꿀떡은 핫게'와 '꿀떡은 초콜렛'은 국산 벌꿀에 인기있는 건강 소재를 더한 제품이다. '꿀떡은 핫게'는 핫게나무 열매 추출액과 100% 국산 벌꿀을 넣어 영양을 더했고, '꿀떡은 초콜렛'은 초콜렛과 100% 국산 벌꿀을 담아 상큼하게 즐길 수 있다.

원성열 기자



CJ '비비고 볶음밥' 신제품 2종 선행

CJ제일제당이 뜨거운 철판에 빠르게 볶아 불향이 가득한 냉동밥 신제품 '비비고 볶음밥'을 출시했다. '비비고 새우볶음밥'과 '비비고 닭가슴살볶음밥' 2종이 다. 외식에서 즐길 수 있는 정통 볶음밥 레시피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불향 기술을 적용했다. 180도 이상 고온 불판에서 빠르게 볶아 은은한 불향과 고소한 밥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밥은 물론

새우, 닭가슴살, 야채, 계란 등 모든 재료를 뜨거운 철판에서 조리해 갓 볶은 불맛을 극대화했다. 국내 냉동밥 시장은 연평균 5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300억원대 시장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체 시장이 340억원 규모(9월 기준·링크아츠에 자료)로 커져 지난해 한해 시장규모(309.6억원)를 넘어섰다.

팔도 '도시락' 봉지면 출시

팔도가 '도시락' 용기면을 봉지면으로 재탄생해 출시했다. 1986년 출시 이후 30년 만이다. '도시락' 봉지면은 용기 제품의 진하고 구수한 쇠고기 국물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맛과 식감을 더욱 업그레이드했다. 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얇은 면발을 적용하였으며, 면발에 마늘과 양파 등의 아재품미액을 첨가해 국물과의 어울림을 강화했다. 사골과 장국 육수를 보완해 더욱 진하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도시락'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면과 동일한 디자인 틀을 적용했다. 출고 당시의 복고 이미지를 살린 것도 특징. '도시락' 봉지면의 가격은 700원이다. 팔도 마케팅 담당자는 "새롭게 출시하는 '도시락' 봉지면과 기존 용기면 제품을 통해 저가 라면시장을 공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여행·레저

본격 스키 시즌 돌입...스키어·스노보더 세상

주말부터 주요 스키장 잇따라 개장 오픈 기념 특가·패키지 행사 다양

겨울레포츠의 꽃, 스키 시즌이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4일 용평과 휘닉스파크가 국내 스키장 중 가장 먼저 개장한데 이어 이번 주말부터 12월 초까지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엘리시안 강촌, 곤지암, 알펜시아 등 경기·강원권의 스키장들도 잇따라 슬로프를 오픈 한다.

충천의 대명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25일 금요일 오전 480m 길이의 초급자 코스 발라드 슬로프를 개장하면서 16/17 시즌을 시작한다.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발라드 슬로프를 시작으로 전체 13개 슬로프를 순차적으로 오픈 할 예정이다. 16/17시즌 개막에 맞춰 개장일부터 오픈기념 특가 프로 모션을 실시한다. 프로모션은 1개 슬로프를 개장하는 기간까지로 3개 면을 오픈하면 정상요금으로 환원한다.

'퍼스트 스키어', '베스트 드레서 스키어' 등에게는 스키리프트권, 오션월드 입장권 등의 경품을 준다. 스키장 오픈에 이어 26일에는 예년보다 20일 빨리, 120m 길이의 눈썰매장도 오픈 한다.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16/17 스키 시즌을 기념해 '엘리버드 윈터 패키지'를 출시했다. 27일까지 한정 판매하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충천의 엘리시안 강촌도 25일 개장한다. 서울 상봉역에서 전철을 타면

1시간 이내에 도착(백양리역)하는 접근성을 자랑하는 엘리시안 강촌은 팬더 슬로프와 래빗 슬로프 등 초급자 코스 2면을 오픈 한다. 개장 당일엔 리프트가 무료이며 장비도 1만원에 렌탈 할 수 있다. 엘리시안 강촌은 이번 시즌에 초급자 및 유아, 어린이 스키를 위해 초급자 슬로프 내 무빙워크 설치, 국가대표 스키선수 출신 지도자의 키즈 아카데미 스쿨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다.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는 26일 개장한다. 초급자 코스 알파를 먼저 오픈하고, 이어 초중급자 코스 브라보, 상급자 코스 델타를 차례로 개장한다. 개장 당일 스키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리프트 및 렌탈을 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개장일부터 슬로프 2개 면을 오픈 하기 전까지다.

12월 첫 주말인 3일에는 수도권 스키장 중에 광주 곤지암리조트가 오픈 한다. 곤지암 리조트는 서울서 차로 40분 거리로 최근에는 경강선 곤지암역 신설과 성남-강호원간 고속도로로,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 한국 스키장만의 명물 서비스로 꼽히는 심야스키 마니아를 위해 22억원을 투자해 전 슬로프 조명을 깜빡임이 없고 자연광에 가까운 LG전자의 차세대 'PLS 조명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국제스키연맹과 연계해 다양한 어린이 스키 프로그램 운영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곤지암 리조트에서 야간스키를 즐기는 스노 보더.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에 걸쳐 경기·강원권의 주요 스키장들이 문을 열고 16/17 스키시즌을 시작한다. 사진제공: 곤지암 리조트

동해안 해파랑길 여행 '리센롱 특수'

(싱가포르 총리)

'총리 발자취 답사' 한국관광 상품 싱가포르 단체관광객 241명 참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견기여행 상품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중인 동해안 '해파랑길'에 싱가포르 단체관광객이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6일부터 8박 9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단체관광객 241명이 동해안 '해파랑길'을 주요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해파랑길을 따라 고성, 속초, 양양, 경주 등 주요 코스를 비롯해 설악산, 낙산사 등 동해안 주요 관광지, 불국사, 첨성대 등 경주와 부산, 서울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여행상품의 이름은 '싱가포르 총리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한국 여행'이다. 싱가포르 리센롱 총리가 지난해 12월 휴가 때 강원도와 경주 지역의 해파랑길 하이킹 코스를 여행하고 자신의 SNS에 올려 이 지역이 유명세를 탄 것에서 착안했다. 리센롱 총리가 SNS에서 소개한 이후 해파랑길은 싱가포르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는 등 현지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가 진행한 상품 모객에서도 당초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인기를 보였다. 문체부 황명선 관광정책실장은 "싱가포르 단체관광객의 해파랑길 여행유형을 계기로 해안비경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관광자원과 연계해 국제적인 도보여행지로 관광 콘텐츠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호텔 더 플라자 '윈터 컬렉션' 패키지

서울 태평로 호텔 더 플라자는 도심 속 특급호텔로 떠나는 문화여행을 테마로 '윈터 컬렉션' 패키지를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운영한다. 개관 40주년을 맞은 더 플라자가 메리트의 '오토그래프 컬렉션'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뒤 내놓은 첫 겨울 패키지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 전시회와 함께 문화 컬래버레이션으로 구성했다. 객실 1박과 휘트니스 클럽, 실내수영장 이용과 객실 네스프레소 머신과 커피 캡슐 3개를 함께 제공한다.

포시즌스 호텔, 카르티에와 '올라보'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주얼리·시계 브랜드 카르티에와 함께 크리스마스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기부행사를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유명 플로리스트 니콜라이 버그만이 제작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카르티에 오너먼트를 비롯해 카르티에 주얼리 박스를 재현한 그랑 마니에르 화이디 초콜릿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카르티에 보르도 색상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지하 바 '찰스 H. 바'의 루비 타임피스 카데일 등을 판매한다. 수익금 중 일부는 카르티에가 후원하는 마리아 수녀회에 기부한다.